

보도일시

2026. 9. 15.(화)

배포

2026. 9. 15.(화)

고성 초도지구, 연안 침식·월파 피해 막는다

- 국가가 직접 연안연안침식 원인을 분석, 백사장 복원 및 주변 시설물 보호방안 마련-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정인)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안침식과 배후지 월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‘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2026년 9월 중 착수 예정인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5개월간 약 22억원을 투입하여 연안침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훼손된 백사장을 복원하는 등 주변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안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 특히 파랑, 해빈류 및 해저질 등에 대한 해양조사와 수치모형실험 등을 실시하여 초도지구의 연안침식 발생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해안특성을 고려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할 예정이다.

박정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“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토대로 향후 초도지구의 연안침식 방지 및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	책임자	과 장	김연수 (033-520-6251)
		담당자	주무관	장성욱 (033-520-6256)

□ 사업목적

- 해일·파랑 등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침식방지 및 지역주민의 재산·생명 보호, 쾌적한 연안이미지 개선으로 해수욕장 기능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총사업비 : 47,053백만원
- 사업내용 : 저천단이안제 560m(140m x4기), 양빈 40,000m³ 등
- 사업기간 : '26. ~ '32.

□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

- '20. 6. 3. :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
- '26. 9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

□ 관련 도면

